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허승연·이연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박사·한양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Fashion Design Development applying Expressive Techniques of Depaysement

Seung-Yeun Heo · Youn-Hee Lee**

Ph.D.,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2014. 7. 16. 접수; 2014. 9. 1. 수정; 2014. 9. 4.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the artistic value and formative aesthetic of clothes in daily life through a proposal of inventive fashion design by utilizing Depaysement of Surrealism, which visualizes a more realistically and more specifically than fact in illogical and unfamiliar situation, Focused on details of Korean traditional costume silhouette.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literature and existing researches related to Depaysement were analyzed through theoretical review for establish the expressive techniques of Depaysement expressed in contemporary fashion. Conclusion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xpressive techniques of Depaysement are derived that are 'change of scale', 'change of materials', 'combination of heterogeneous objects', 'arrangement of object in a strange space', 'overlapped object', 'paradoxical image', 'variable awareness of boundary.' Second, expressive techniques of Depaysement present a new methodology which can express an irrational thinking, which is not controlled by reason such as unconsciousness, dream, and fantasy etc, in a way that is easier and more realistic rather than thinking centered on an art which is ruled by consciousness. Third, unique and free-form fashion design, which destroys a general idea, was could develop by using abundant materials and composing items borrowed various silhouette for expressive the techniques of Depaysement. Forth,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Korean fashion design, that was limited by the standard form when we approach Korean fashion design as identity of social culture, ideology of reflection and expression, object of commercial expression, was could think outside of the box.

Key Words: Depaysement(데페이즈망), Korean fashion(한국적 패션), Korean traditional costume image(한국 전통 복식 이미지), Surrealism(초현실주의), Unconsciousness(무의식)

I. 서론

서양 예술사조의 출현에 영향을 미친 정신적 또는 형식적 배경들과 조형적 특징들은 새롭고

창의적인 의상디자인을 위해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21세기 현대인들은 의식주를 비롯한 생활수준이 과거에 비해 향상되고 미에 대한 기준과 욕구가 다양해짐에

Corresponding author ; Youn-Hee Lee

Tel. +82-2-2220-1195, Fax. +82-2-2220-1856

E-mail : yiyhee@hanyang.ac.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따라 더욱 더 흥미롭고 유쾌한 인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실적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인 데페이즈망(Depaysement)은 일상에서 접하기 어렵고 낯선 이미지와 상황들을 현실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시각화시킴으로써 인간에게 새롭고 창의적인 상상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상징적이고 인상 깊은 이미지의 의상디자인 제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의식과 사고를 급격하게 전환시키겠다는 이념으로 다양한 비전과 가능성들을 실험하여 인간의 무한한 무의식적 세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러한 무의식적 세계를 현실적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다.

오늘날 한류와 K-pop에 대한 열기를 계기로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며(이유경, 2013), 한복 모티프와 실루엣을 응용하여 현대 의상으로 발전시킨 연구 및 모더니즘과 같은 서양예술 사조의 조형성을 접목시킨 한복 디자인 연구는 한국 전통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지속되어지고 있다. 한국 복식 실루엣의 모티프를 차용함과 동시에 서양 예술사조의 조형적 특징을 활용한 의상 디자인 개발 연구는 글로벌 마인드와 동서양의 융복합적 감성을 소유하고 있는 21세기 현대인들의 미적 욕구 및 가치 충족을 비롯한 한국적 자존감의 계승을 위해 끊임 없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현실에서 존재할 수 없는 낯설고 비논리적인 상황들을 사실보다 더욱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시각화 시킨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인 데페이즈망을 활용한 패션디자인을 한국 전통 의상 실루엣의 디테일을 차용하여 독창적으로 제안함으로써, 일상생활 속에서 의상이 가지고 있는 예술적 가치와 조형미를 한층 고양시키는데 있다. 본 연구는 언제나 탈획일화를 지양하는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자신만의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표현하고 개발하는데 있어 효과적인 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를 접하는 인간들에게 현실 초월의 눈속임을 통한 즐거움의 경험과 유희적 감성을 전달함으로써 의상디자인이 갖는 의미를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연구를 위한 방법으로 데페이즈망 관련 문헌과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선행된 데페이즈망 연구의 고찰을 통해 현대 패션에 표현된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데페이즈망을 활용한 의상디자인 실물 작품을 전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의상디자인은 ‘당의, 승무 장삼, 배자, 두루마기 등’과 같은 한국 전통 의상 실루엣과 디테일을 응용하여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뷔스티에, 케이프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의상디자인 제작에 활용된 소재는 ‘천연 노방 실크, 면, 폴리에스테르,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모직 등’의 직물을 믹스매치하여 초현실적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II. 이론적 고찰

1. 데페이즈망의 개념 및 출현배경

데페이즈망(Depaysement)은 사전적으로 ‘낯설, 낯선 느낌, 낯섬을 느끼게 하다, 환경의 변화, 고국으로부터의 추방 등’을 의미한다(정지영, 홍재성 편, 2005). 데페이즈망은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낯익고 익숙한 일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나, 실존하지 않는 인간의 상상적 정신세계를 현실보다도 더욱 사실적이고 정확한 이미지로 묘사하여 표현하는 것이다.

데페이즈망의 출현은 정신적인 배경과 형식적인 배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인희, 2003). 데페이즈망의 정신적 배경은 불교의 선(禪)사상과 게오르크 헤겔(Georg Wilhelm Friedrich Hegel, 1770~1831)의 변증법(dialectic, 辯證法) 및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절대유일의 진리가 아닌 모순과 부정을 통해 진리의 세계를 말한다라는 것에서 그 연관성을 찾아 볼 수 있다. BC.3000년 경 발생한 불교의 선이란, 억압하지 않은 자유로운 상태인 무형식의 상태, 즉 공(空)의 상태로 순응하는 태세를 말하며 이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체험하는 것이다(김한웅, 2007). 선사상의 ‘비논

리적, 비합리적, 기이함, 무의식, 무아의 경지'는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에서의 '인간의 무의식과 연결, 대상의 낯선 공존, 기괴함, 현실보다 더욱 사실적인 부조리성'과 같은 신비주의 원리와 유사하다. 또한 대립과 모순되었던 것들이 합일되고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되기 위해 기존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독단으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는 헤겔의 변증법 이론은 논리성·합리성에 대한 부정의 측면에서 초현실주의의 이념과 맞닿아 있으며(이인희, 2003), 상징적 맥락을 부정하고 사물에 대한 본질적 인식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열어준다는 부분에서 데페이즈망과 그 연관이 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신 체계를 3단계 층으로 구분하여 무의식과 의식, 전의식 사이의 갈등과 역동 관계를 주창하고, 무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중앙대백과, 1986). 인간정신의 전면적 해방을 위한 일종의 신비이론인 프로이트의 이론은 초현실주의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데페이즈망은 그것을 시적 이미지로 낯설게 형상화시키면서 발전된 것이라 할 수 있다(허승연, 2014).

데페이즈망의 형식적 배경을 찾기 위해서는 15세기 중세 미술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며, 낭만주의 및 상징주의의 여러 작품들을 통해서도 그 형식적 배경을 찾아 볼 수 있다. 15세기 이후 중세 미술(1500-1593)에서는 화면 안에서 하나의 대상이 가변적으로 인식되거나, 무생물을 살아있는 대상으로 의인화시키는 것, 대상의 전체 또는 부분 스케일을 과장시키는 표현에서 데페이즈망적 성격이 나타난다. 18세기 후기부터 20세기 초 낭만주의 작가들은 이미 한계 지어지고 도식화된 현실을 넘어, 자신들의 사고나 감정을 작품을 통하여 현실화 하였으며, 현실을 뛰어 넘는 무한한 대상의 추구에는 동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의지와 감정적 상태를 수반하였다. 낭만주의 작품은 초현실적인 신비감을 자아내며, 그것 본래의 표면적인 현상이 다른 것을 암시하거나 드러내 보이는 상징성을 가진다(김효영, 2011). 또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의 상징주의 작가들은 물질세계와 정신세계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서 인간의 내면을 강조하고 비합리성을 추구하였으며, 일상적인 이미지의 왜곡과 비사실적인 우화세계 및 주체를

기묘하게 병치하는 표현(Edward Lucie-Smith, 1993)을 하였다. 이는 감각의 대상이 되는 실체의 대상을 그대로 즐기려 하지 않고, 감각의 대상이 암시하는 또 다른 세계를 추구했음을 나타낸다. 다다이즘(1915-1922)은 논리적이거나 이성적 성향과는 반대되는 불합리적, 허무적,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의식하의 세계를 표현하는 회화 중심의 사고보다 무의식, 꿈, 환상 등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 세계를 보다 쉽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권연옥, 2009), 이로써 인간의 도덕적·사회적 의식을 파괴시키고 자유로운 정신적 해방을 갈망하였다. 이와 같이 실증적 자료에 바탕을 둔 형식적 배경들은 공통적으로 현실보다 더욱 사실같이 표현하는 체계적인 시각적 변증법을 추구하였으며, 이는 데페이즈망의 출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허승연, 2014).

2. 현대 패션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

데페이즈망 패션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박진수(2003)는 '형태의 왜곡과 변형, 중력의 거부, 사물의 은유, 생물의 무생물화, 소재의 왜곡과 변형, 신체부위의 응용, 내의와 외의의 역전, 상하 역전, 전후 역전, 타투적 느낌'으로, 이지연(2011)에 의하면 '자연물의 이미지로 변화의 효과, 신체의 일부분을 의복에 표현, 배경과 사물안의 이미지를 동일선상에 배치'로, 강현숙(2010)에 의하면 '개방과 유동, 구속과 억압, 반전과 역설'로 나타났다. 권연옥(2010)은 그의 패션스타일링 연구를 위해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생물의 무생물화, 사물의 은유, 착시, 신체의 상징화, 위치전환'으로 분류하였으며, 김순자(2010)는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 표현된 데페이즈망 기법을 '재질의 변환, 다중공간, 이질적 공간배치, 가상공간적 환상 표현, 착시에 의한 공간의 혼동'으로 도출시켜 데페이즈망이 패션이미지 전달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허승연, 이인희, 2014). 이와 같이 5개의 데페이즈망 관련 패션 분야 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패션 분야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대상의 낯

〈표 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박진수 (2003)	권연옥 (2009)	김순자 (2010)	강현숙 (2010)	이지연 (2011)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
형태의 왜곡과 변형		비합리적 원근법	확대와 과장		⇒ 스케일의 변화
중력의 거부		크기의 변환			
생물의 무생물화	생물의 무생물화	재질의 변환		자연물의 이미지로 변화의 효과	⇒ 재질의 변환
소재의 왜곡과 변형	사물의 은유				
사물의 은유(병치)		인체 왜곡		모순된 이미지의 중력을 무시한 결합	⇒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이질적 이미지의 합성			
신체 부위의 응용(전치)	신체의 상징화	이질적 공간 배치	개방과 유동	신체의 일부분을 의복에 표현	⇒ 대상의 낮선 공간 배치
내의와 외의의 역전	위치전환	가상공간적 환상 표현			
상 . 하 역전					
전 . 후 역전					
	착시	다중공간			⇒ 대상의 중첩
			구속과 억압		⇒ 역설적 이미지
			반전과 역설		
타투적 느낌		착시에 의한 공간의 혼동		배경과 사물안의 이미지를 동일 선상에 배치	⇒ 가변적 경계인지

선 공간 배치, 대상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 가변적 공간인지'의 총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표 1).

패션 분야 데페이즈망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은 연구자들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그것들이 의미하고 있는 특성은 서로 같은 맥락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들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케일 변화'는 주변과 대조를 이루어 인체, 사물, 생물을 비롯한 대상의 전체나 부분을 비논리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시키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일상적인 공간 안에서 원경

의 대상을 확대시키거나 근경의 대상을 축소시켜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제 대상 크기를 혼돈시킴으로써 시각적 착시와 놀람을 일으키기는 방법으로 패션을 비롯한 조형예술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다.

둘째, '재질의 변환'은 대상의 정상적인 외적 물성의 제거하거나 대상 본래의 외적 본질을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꿈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던 신념과 대상 본연의 실체 사이에서 유지해 오던 일치성을 파괴시키고 비일관적인 낮선 결과물을 창조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특징을 외적 형태의 변화 없이 변환시켜 대상에게 새로운 시각적 표

현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관찰자들의 사고능력을 확장시키는 기법이다.

셋째,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은 두 개 이상의 연관성이 없는 대상들을 서로 붙여 놓거나 의도적으로 나란히 병치시켜 결합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실험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함으로 인해 인간의 제한된 사고의 영역을 무한대로 확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넷째,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는 대상이 원래 있어야 할 곳이 아닌 전혀 다른 환경에 위치시키거나 대상을 고유의 영역 밖으로 옮겨 기대되는 역할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을 생소한 장소에 배치하거나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대상을 고립시켜 낯설고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창출시킴으로써 관찰자 스스로가 그 공간 안에서 대상이 갖는 의미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관찰자들의 잠재적 의식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법이다.

다섯째, ‘대상의 중첩’은 대상의 이면적 노출

과 부분적 가림을 통해 관찰자로 하여금 선택적으로 불확실하고 모호한 지각을 하도록 하게하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중첩된 이미지를 통해 관찰자가 시공간에 따라 자각할 수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를 자율적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관찰자가 불투명하게 중첩된 대상의 이미지들에서 변칙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기법이다.

여섯째, ‘역설적 이미지’는 대상에 양립될 수 없는 성질이나 의미를 동시다발적으로 내포시키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상반되는 현상이나 성질에 영향을 받고 있는 대상에서 숨겨진 공통성과 모든 가능성을 관찰자들에게 한꺼번에 주입시킴으로써 있는 그대로의 현상이나 작용을 무의식적으로 순수하게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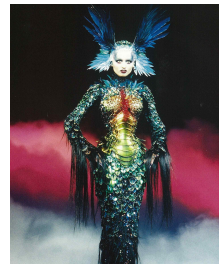
일곱째, ‘가변적 경계인지’는 대상이 공간 안에 숨겨진 다른 착시 이미지로 중첩되어 나타남으로써 관찰자들이 대상의 외부 경계와 공간의



<그림 1>
Viktor&Rolf, 2011
(출처: <http://fashion.telegraph.co.uk>)



<그림 2>
Alexander McQueen, 2007
(출처: *Genius of a Generation*, p. 77)



<그림 3>
Thierry Mugler, 1997
(출처: *Thierry Mugler*, p. 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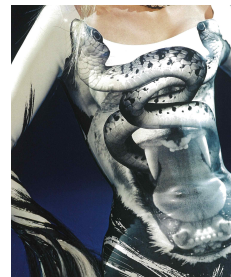
<그림 4>
Thierry Mugler, 1992
(출처: *Galaxy Glamour*, p. 125)



<그림 5>
Prada, 2010
(출처: *Schiaparelli & Prada*, p. 150)



<그림 6>
Jeremy Scott, 2010
(출처: <http://subconchicness.wordpress.com>)



<그림 7>
Thierry Mugler, 1996
(출처: *Galaxy Glamour*, p. 115)



<그림 8>
Thierry Mugler, 1991
(출처: *Galaxy Glamour*, p. 21)

내부 경계를 유동적으로 모호하게 인지하도록 만드는 기법을 의미한다. 이는 관찰자들이 단일 관점에서 시공간적 경험에 따라 공간 내부의 완전한 이미지를 다르게 해석하게 되는 정신적 착란증세와 유사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초현실적 기법이다.

이처럼 테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물의 생김새나 모양 및 일반적으로 재료가 가지는 상식적 성질을 실제와 다른 형식으로 바꾸어 관찰자들에게 상식 밖의 정신적 충격을 가져다주며, 두 개 이상의 대상들이 서로 우연한 병치와 의도적인 전이를 통해 서로 혼합되거나 결합되어 그 결과물을 대하는 관찰자들로 하여금 낯설고 기이한 무의식적 상상력을 유발시킴으로써 정형화된 사고를 확장시킨다. 또한 어떤 대상과 그 대상이 위치한 장소나 공간의 인과적인 상호관계를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낯설게 바꿔줌으로써 관찰자에게 기묘한 불안감과 심리적 모순을 조성하여 지각을 환기시키며, 본래부터 대상이 가지고 있거나 인식되어왔던 전체 또는 일부분의 성질과 의미를 다르게 함으로써 관찰자들로 하여금 시공간에 따라 대상의 본질적 개념을 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현대 패션에서 테페이즈망은 작가의 주관적 해석을 더욱 강하게 부각시킴으로써 대중들에게 예상치 못한 충격 및 유희 등의 감흥을 제공하고 있다(권연옥, 2009). 테페이즈망 표현은 패션에서 <그림 1>처럼 특정 디테일이나 오브제 또는 액세서리를 다양한 크기로 중첩시키거나 배열시킨 형태로 스케일이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일반적으로 의상 제작에 활용되지 않는 낯선 소재들을 접목시킨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작가의 창의성과 개성을 더욱 부각시킬 수 있으며, 대중들의 고정된 사고를 자유롭고 폭넓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테페이즈망은 <그림 3>과 같이 패션에서 의상뿐 아니라, 메이크업과 헤어, 액세서리를 비롯한 패션스타일링적인 요소들을 활용해서 제3의 생물체 형상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림 4>처럼 의복과 관련 없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오브제를 의상이라는 낯선 공간에 접목

시켜 관찰자로 하여금 의상에 대한 고정적인 미적관념을 스스로 변화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한 패션디자인에서 신체의 일부분을 낯설게 개체화시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그림 5>처럼 종종 찾아볼 수 있으며, 의복의 위치나 착장방식을 전환시켜 작가의 열린 사고를 <그림 6>과 같이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테페이즈망 패션디자인은 정형화된 사고의 영역에서 탈피하도록 해학적인 이미지로 대중들에게 다가가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억압되어 왔던 인간의 표현 양식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띠에리 뫼글러를 비롯한 20세기 후기의 오프 꾸뛰르 패션디자이너들은 초현실적 분위기의 의상과 환상적인 패션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표현기법을 활용하였는데, 그 중 의복 내에 다중 이미지를 노출시키거나 의복과 배경간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무의식적인 사고의 영역을 <그림 7>과 <그림 8>의 디자인처럼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의식 영역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초월시킨 듯한 패션디자이너들은 타인과 대비되는 개성을 추구하며 진화하고 있는 현대인들의 라이프스타일을 충분히 충족시키고 있으며, 다원화된 현대 예술문화의 흐름 속에서 더욱 굳건하게 미적가치를 다져나가고 있다(허승연, 2014).

III. 테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개발

본 연구에서 개발된 테페이즈망 패션디자인은 ‘당의, 승무 장삼, 배자, 두루마기 등’ 한국 전통의상 실루엣의 디테일들을 응용하여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뷔스티에, 케이프 등’의 다양한 아이템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통해 과거와 현재, 한국미와 서양미, 평면과 입체 사이에서 융합되어 존재하는 상태의 한국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유니크하게 표현하였다. 소재는 천연 노방 실크, 면,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모직 등 다양한 직물을 믹스매치하여 초현실적 이미지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 2>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을 활용한 패션디자인

	디자인 1-1	디자인 1-2	디자인 2-1	디자인 2-3	디자인 3
작품 사진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대상의 중첩		대상의 낮선 공간 배치
모티브	당의, 두루마기		배자, 당의, 저고리		배자, 전복
아이템 구성	재킷, 블라우스, 스커트	블라우스, 스커트	케이프	블라우스, 스커트	원피스
색상	블랙, 골드, 그레이, 그린		화이트, 골드		브라운, 골드, 옐로우 오키 및 폴리크롬
소재	모직, 면, 폴리에스테르		노방 실크, 면, 플라스틱		레이온 이중직, 플라스틱, 폴리우레탄
	디자인 4	디자인 5	디자인 6	디자인 7	
작품 사진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대상의 낮선 공간 배치,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대상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	가변적 경계인지
모티브	당의, 원삼		승무 장삼, 당의, 철릭	저고리, 당의, 가슴가리개	당의, 전복
아이템 구성	하프 코트		후드 블라우스, 튜브 탑, 스커트	블레로, 뷔스티에, 스커트	원피스, 케이프
색상	브라운, 골드, 옐로우 오키, 초콜릿		화이트, 실버	그레이, 실버	화이트, 실버, 골드
소재	레이온 이중직		노방 실크, 면, 망사	인조 가죽, 면	폴리우레탄, 면, 거울

디자인은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부드러운 느낌의 색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실버와 골드

같은 금속 느낌의 인위적이고 강렬한 색상들을 포인트로 하였다. 또한 주요 부자재로는 다양한

종류의 조화(造花)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개발된 의상을 통해 한국 복식 이미지의 미적 가치가 화려하게 피어나길 염원하는 마음을 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개발된 데페이즈망 패션디자인은 새롭게 창조되는 낯선 분위기의 극적인 한국 복식미를 통해 이성과 전통의 견실함에서 벗어난 시적인 것들로 신비롭게 시각화됨과 동시에 관찰자들의 정신세계를 초현실적 세계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각각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된 의상디자인 실물과 작품설명은 다음과 같다(표 2).

디자인 1-1과 1-2는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 ‘스케일의 변화’와 ‘재질의 변환’이 활용되었다. 당의 형태적 특징은 도련이 둥근 곡선으로 되어 있으며, 앞길이 좌우 두 자락으로 겹쳐져 있는 것이다. 또한 두루마기는 소매가 좁고 몸통의 길과 무가 연결되어 펼쳤을 때에 아패로 퍼지는 실루엣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디자인1의 재킷 실루엣은 당의나 두루마기와 같은 한국 전통 의상의 형태나 디테일들을 변형시켜 형성하였고, 재킷의 칼라는 두루마기의 길과 무가 연결된 것처럼 일반적인 재킷의 플랫 칼라와는 차별화되도록 과장되고 넓게 디자인하여 몸판과 연결되도록 구조적으로 제작하였다. 특히 이 플랫 칼라 안쪽의 중첩된 재킷의 이중 칼라의 형태는 당의의 앞가림 형태 실루엣을 차용하여 래글런 소매로부터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허리 부분이 없는 민소매 탑 블라우스의 형태는 전통 조끼와 당의의 실루엣에서 차용되었으며, 스커트는 로우 웨이스트의 요크가 있는 하렘(harem) 스커트로 제작하였다. 전반적인 색상은 자연에서 추출할 수 있는 컬러를 기초로 블랙 위주의 채도가 높지 않은 골드, 그레이, 그린으로 구성하였으며, 소재는 천연 모직, 양고라, 면 등을 활용하였다. 이 작품의 주요 부자재로는 의상 표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블랙 락카로 염색한 작약과 수국 조화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인 자연 재질의 꽃을 실제 존재하지 않은 인공적 컬러의 재질로 바꾼 기법을 적용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의상 패턴의 패넬 크기와 및 디테일들의 재질 변화를 통해 관찰자들에게 시지각적 혼돈을 야기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으

며, 이를 접하게 되는 대중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함께 진열된 상품에 대한 호감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해 보았다. 또한 이는 대상에 대한 관찰자들의 시각적 조화를 방해하고 낯섬은 지각적 경험과 사고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디자인 2-1과 2-2는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과 ‘대상의 중첩’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작품의 아이템은 케이프, 블라우스, 스커트로 구성하였다. 한복의 배자는 소매가 없고 겨드랑이까지 깊게 트여 있어 저고리 위에 덧입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당의 실루엣과 결합시켜 케이프의 형태로 변형시켜 형성하였다. 이 작품에는 일반적인 의상 디자인에 사용되지 않는 투명한 플라스틱 반구와 조화 같은 소재를 케이프의 부자재로 사용하여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을 표현하였으며, 이는 꽃이 피어나기 전의 모습인 꽃망울을 형상화하기 위함이다. 당의와 저고리의 디테일이 차용된 블라우스와 스커트는 겹쳐지고 중첩된 여러 소재 원단들의 시작된 부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대상의 중첩’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의상이 가진 실험적이고 모순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하도록 하였다. 색상으로는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소재는 천연 노방 실크와 면을 기본 활용하였다. 이와 같은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이 활용된 패션디자인은 대중들에게 인간이 일상에서 접할 수 없었던 비상식적인 스토리를 전달할 것이며, 현실에서 느낄 수 없었던 무의식적인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고정된 의식을 파괴시키고 보다 자유로운 정신적 해방의 통로로 안내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식 원피스로 개발된 디자인 3은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의 표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 작품에 차용된 디테일은 저고리나 두루마기 위에 덧입는 배자나 홀으로 착용이 가능한 전복에서 차용되었다. 이 작품은 의상 표면에 다양한 컬러의 눈동자 동공과 작은 크기의 조화를 낮설게 장식하는 방식으로 ‘대상의 낯선 공간 배치’를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소재는 레이온 이중직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눈동자 동공은 투명 플라스틱 반구와 실사 이미지가 프린팅 된 투명 폴리우레탄으로 나타냈다. 전체 색상은 브

라운 톤의 컬러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눈동자 동공의 색은 다양한 컬러로 표현하였다. 한국의상 실루엣의 디테일과 함께 눈동자 동공과 같은 신체의 일부분을 낮설고 과장되게 표현한 본 작품은 심미적이거나 도덕적인 관습에서는 다소 벗어난 방식으로 관찰자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고착화된 인간의 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장면구성과 함께 신선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데페이즈망 패션 디자인은 예기치 못한 상식 밖의 표현으로 관찰자들에게 더욱 더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라 사료된다.

디자인 4는 작품 3에 적용된 ‘대상의 낮선 공간 배치’와 더불어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이 작품의 아이템은 원삼과 당의의 실루엣과 디테일을 변형하여 하프 코트 형태로 구성하였다. 원삼은 본래 앞깃이 둥글고 옆이 터져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이를 디자인4의 뒷부분으로 이동시켜 허벅지를 덮을 수 있도록 변형하였으며, 원삼의 길고 직선느낌의 실루엣은 이 작품의 전체적인 실루엣 균형에 반영되도록 하였다. 이 작품에 활용한 ‘대상의 낮선 공간 배치’기법은 체스피스들이 원래 있어야 할 체스판 표면이 아니라 의상의 표면 및 장식된 조화 사이에 낮설게 위치시키는 방식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이러한 낮선 대상들은 작품에서 조화와 함께 결합되어 위치하면서 이질적인 오브제들의 만남을 동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디자인 4의 소재는 작품 3의 주요 직물과 같은 레이온 이중직이며, 색상은 브라운, 초콜릿, 골드, 옐로우 오커 같이 체스의 컬러 분위기와 관련이 있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상과 공간, 대상과 대상간의 인과적 상호관계를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낮설게 전환시키는 표현의 의상디자인은 관찰자들에게 심리적 불안감과 기묘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각을 환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5는 ‘대상의 중첩’표현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후드 블라우스, 튜브 탑, 스커트 아이템으로 구성되었다. 이 작품의 후드 블라우스와 스커트 제작을 위해 승무 장삼과 당의의 디테일이 차용하였으며, 이를 철릭의 복식 실루엣과 유사하게 허리띠로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제작

하였다. 장삼은 길이와 소매가 길며, 전체적으로 품이 넓은 승려의 옷웃으로써, 승무를 출 때에 고깔 형태의 모자와 함께 착용하였다. 또한 철릭은 따로 구성된 상하의를 연결하여 하나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다른 한복의 구조와는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 작품은 관찰자가 의상의 각 패널이 시작되고 끝나는 부분을 쉽게 파악하기 어렵도록 실크 노방 원단을 겹치고 중첩시켜 디자인하였으며, 관찰하는 사람의 자유로운 시점에 따라 승무 장삼 또는 당의 및 철릭과 같은 다양한 전통 복식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현하였다. 색상은 자연의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화이트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실버를 포인트로 사용하였으며, 소재와 부자재는 천연 노방 실크와 면, 조화를 중점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처럼 ‘대상의 중첩’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은 시공간에 따라 형태가 변칙적으로 느껴지도록 관찰자들의 감각을 그들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패션디자인 제작을 가능케 하고 있다.

‘역설적 이미지’기법을 활용한 디자인 6은 저고리와 당의 및 가슴가리개의 디테일을 차용하였으며, 볼레로, 뷔스티에, 스커트와 같은 현대 의복 아이템으로 변형시켜 표현하였다. 이 작품에서 볼레로는 가슴가리개의 변형인 뷔스티에와 공간이 떨어진 상태로 착장되었는데, 이처럼 볼레로가 중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기 위해 데페이즈망 기법 ‘역설적 이미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뷔스티에는 내부와 외부가 다른 두 겹의 형태로 제작되었는데, 이로 인해 위쪽 가슴부분의 벌어진 공간에 은색 락카로 염색한 조화를 화병에 꽃을 꽂아 장식하듯 표현하였다. 하의는 원단을 겹겹이 중첩시켜 각 패널이 시작된 부분이 혼동되도록 플레어 스커트로 제작하였다. 색상과 소재는 따뜻한 느낌의 어두운 그레이 톤 면직물과 인조가죽, 실버 컬러로 코팅된 면 소재와 조화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역설적 이미지’는 패션디자인에서 상품과 오브제를 시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온 중력 에너지를 관객들이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지각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본래 패션이 가지고 있던 의미와 가치를 특별하게 극대화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나타낼 수 있었다.

디자인 7은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가변적 경계인지’를 활용하였으며, 당의와 전복의 디테일을 차용한 케이프와 원피스로 아이템을 구성하였다. 케이프 표면에 크로셰 핸드 니팅(crochet hand knitting: 코바늘 손뜨개질)으로 장식된 투명한 반구형의 오브제는 앞서 제작한 다른 작품에서 부자재로 사용된 조화를 반구형 니트 오브제로 형상화한 것이다. 이 작품에서 ‘가변적 경계인지’를 표현하기 위해 케이프의 소재를 투명한 폴리우레탄으로 표현하였으며, 이와 함께 장식된 투명한 반구형 니트 디자인도 투명 폴리우레탄 끈을 활용하였다. 케이프 표면에 장식된 투명한 반구형 니트 오브제와 내부 원피스 표면에 장식된 원형 거울의 배치 및 구성은 당의의 앞여밈 실루엣을 차용하여 변화시킨 것이다. 내부 원피스의 소재는 광택이 나는 골드 컬러로 코팅된 면을 사용하였으며, 색상은 착시성을 표현하기 위해 화이트, 실버, 골드와 같은 밝은 톤의 광택이 나는 컬러를 적용하였다. 이 작품은 관찰자들에게 착시를 일으켜 대상의 형태와 경계를 선택적으로 인지시키기 위해 투명한 반구형 니트 내부에 삽입된 원형거울과 케이프 내에 착장된 원피스 표면의 원형거울들을 중첩시켜 표현하였다. 또한 관찰자들이 투명한 폴리우레탄 소재의 케이프에 투과되어 비춰지는 내부 원피스의 위치를 케이프의 외부와 내부 공간 사이에서 자유롭게 인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이처럼 패션디자인에서 ‘가변적 경계인지’ 표현기법은 관찰자 개개인의 자연스러운 무의식속의 선택적 공간인지를 유도하도록 나타낼 수 있었으며, 의상을 관찰자에게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패션이미지로 인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수단임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사실적 초현실주의 표현기법인 데페이즈망의 개념과 출현배경을 고찰하고,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데페이즈망 표현기법 분류 . 고찰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미와 서양미, 평면성과 입체성 사이의 융합으로 구성된

데페이즈망 패션디자인 실물을 현대적이면서도 유니크하게 표현하고자 하였다. 의상을 관찰하는 자에게 시각뿐 아니라 촉각적 충격을 주는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은 무의식의 단계를 뛰어 넘어 창조적 발상의 근원이 되며, 오늘날 현대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의상디자인 구상을 가능케 하고 있다. 대립과 모순되었던 것들이 합일되고 새로운 것으로 재탄생되면서 인간 정신의 전면적 해방을 이룬 데페이즈망 패션디자인의 실물 작품을 제작한 결과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페이즈망 관련 현대패션 분야 연구를 분석한 결과, 패션디자인에 적용 가능한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은 ‘스케일의 변화, 재질의 변환, 이질적 오브제의 만남, 대상의 낮은 공간 배치, 대상의 중첩, 역설적 이미지, 가변적 공간인지’로 도출되었다.

둘째, 데페이즈망의 표현기법은 의식하의 세계를 표현하는 회화 중심의 사고보다 무의식, 꿈, 환상 등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비합리적 세계를 보다 쉽게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일상적인 이미지의 왜곡과 비사실적인 주체를 기묘하게 병치시킴으로서 초현실적인 의상디자인 전개가 적합함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실루엣을 차용한 아이템 구성과 풍부한 재료의 사용으로 일반적인 사고를 파괴시킨 독특하면서도 자유로운 의상디자인을 전개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의지와 감정적 상태를 수반한 무한한 대상의 창조적 추구의 사실적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사회 문화적 정체성, 이데올로기의 반영과 표출, 상업적인 표현대상으로 접근할 때 정형화된 형식으로 제한적이었던 한국 전통 복식이미지를 차용한 의상디자인의 개념은 본 연구를 통해 과감히 탈피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꿈꾸는 무한한 환상의 세계를 재미 있고 유쾌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한국적 모티프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는 한국 전통 복식 이미지의 질적 수준 향상과 확산을 위해 체계적으로 꾸준히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규칙적이고 틀에 박힌 삶 속에서

탈획일화를 꿈꾸는 현대인들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데페이즈망의 다양성과 중요성을 확인하고, 의상 실물 제작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데페이즈망의 표현 기법을 규명함으로써 다양한 후속 연구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는 예술사조의 특성과 의상의 접목을 통해 의상의 가치를 예술로 승화시키며, 이를 통해 의상에 대한 부가가치와 창의적인 디자인 개발을 위해 진보적인 사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예술사조의 표현기법과 한국 복식 이미지의 디테일을 접목시킨 패션디자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하고 심도 있게 진행된다면, 미래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패션디자인 발상은 한층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현숙. (2010). 21세기 초 패션에 나타난 *Body Deformation*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옥. (2009). 초현실주의 데페이즈망 기법을 응용한 패션 스타일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자. (2010). 패션일러스트레이션에서의 데페이즈망 표현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2), 21-39.
- 김한웅. (2007). 선사상에 의한 켈스타일의 조형적 공감성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 (2011).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데페이즈망 특성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수. (2003). 데페이즈망 기법을 이용한 패션 디자인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경. (2013). 한류 K-pop 패션에 나타난 고스 이미지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2), 65-75.
- 이인희. (2003). 현대미술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전개양상.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1). *르네 마그리트 회화의 이미지를 응용한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지영, 홍재성. (편). (2005). *두산동아 프라임 불한사전*. 서울: 두산동아.
- 허승연. (2014).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데페이즈망의 표현특성 및 디자인 개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승연, 이연희. (2014). 패션윈도우 디스플레이에 나타난 데페이즈망. *복식*, 64(3), 1-12.
- 중앙대백과. (1986). 서울: 중앙일보사.
- Daniel Bott. (2010), *Thierry Mugler-Galaxy Glamour*. New York: Thames & Hudson.
- Edward Lucie-Smith. (1993). *상징주의 미술 (Symbolist Art)*. 이대일 역. 서울: 열화당.
- Francois Baudot. (1998). *Thierry Mugler*. Munchen: Schirmer/Mosel.
- Kristin Knox. (2010). *Alexander McQueen-Genius of a Generation*. London: Getty Images.
- Mark Polizzotti. (2012). *Schiaparelli & Prada - Impossible Conversations*.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 Art.
- Jeremy Scott. 자료검색일 2013. 10. 1, 자료출처 <http://subconchicness.wordpress.com/2010/03/28/jeremy-scott-when-the-concept-gets-over-the-wearable/>
- Victor & Rolf. 자료검색일 2013. 10. 1, 자료출처 <http://fashion.telegraph.co.uk/hot-topics/galleries/TMG8038884/18/In-pictures-Viktor-and-Rolf-springsummer-2011.html>